

스포츠 포커스

광주시 유도대표



우태규 광주유도협회 전무이사(맨 오른쪽)를 비롯한 광주체육고 감독, 코치, 선수들이 2009년 광주시 유도 발전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체고 및 체육중 선수들이 전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을 하며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내년 광주 유도 부활 한판승 기대

지난 10일 제주도 한라체육관. 2009년부터 국제대회로 바뀌는 제8회 탐라기 전국 유도대회 여자고등부 52kg이하 결승전. 광주체육고 김유라가 결승전에서 화원고 차민지를 안다리걸기 유효승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이때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우태규(42·광주체고·용인대) 광주유도협회 전무이사가 "유라야! 아이고 이쁜놈"을 외치며 경기장으로 뛰어 들었고, 장내 아나운서는 기뻐하는 우 전무에게 "광주유도협회 우 전무님 기쁜 것은 알겠는데 경기장에서 나오시죠"라는 반 농담조 멘트로 한라체육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0.1에 가까운 거구를 비호처럼 날려 김유라 선수에게 달려간 우 전무의 기쁨이 이렇게 남다른데 이유가 있다.

광주 유도는 전국 최고의 여고부와 중상위권의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학과 실업팀이 없어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졸권 타 시·도 실업팀에서 뛰는 선수를 데려와 경기를 치르고 있다.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가 2년 연속 광주대표로 출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이 대학과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 진출해 있다가 광주시 유도협회의 부름을 받고 다시 광주대표로 뛰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우 전무는 전국대회 매 게임 게임마다 피가 마른다. 하여 어린 선수들이 고교에서 성적은

내더라도 고향팀에서 뛰지 못하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운동에 등한시 할까하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김유라가 멋지게 금메달을 따내자 우 전무가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광주유도는 지난 10여년 전만해도 전국 최강의 명성을 자랑했다. 그동안 광주 유도 협회가 내용을 겪으면서 단합을 이뤄내지

다. 하지만 문산중과 문산고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광주체육 중·고 선수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대학부와 실업팀이 단 한개도 없어 고교를 졸업한 선수는 모두 타 시·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가운데 광주체고는 여고부에서 전국 최강의 명성을 지키고 있다. 이번 탐라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유라(-52kg), 이가희(-57kg), 박난희(-70kg) 등이 주축이다. 이들은 탐라기 우승으로 2009년 홍콩으로 선수권대회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남자고등부는 아직 전국 정상권은 아니다. 하지만 광주체고(1990년 졸업)·용인대 출신 김기중(42) 감독이 10년전 광주체고에 부임한 후 전국체육대회 금메달리스트들을 배출하며 전국 정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신대철 코치도 역시 광주체고 선배다. 광주체육중 코치인 민경희(여)·설명환코치도 모두 광주체고를 졸업하고 용인대를 거

친 유도 엘리트들이다. 코치진이 모두 모교 선·후배기 때문에 선수들은 게으름을 피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 시간 외에는 선배로서 어려움을 함께 해줘 광주체고 유도부의 실력은 일취월장하고 있다.

광주체고 선수들은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한 목표를 갖고 있으며 고교를 빛낸 선수들을 닮고 싶어한다. 정호현 국가대표 감독과 윤용발 씨 등이 광주체고 출신 대표적 선수다.

김기중 감독은 "실업팀 선수들을 제외한 광주유도 선수들은 광주체고에서 거의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며 "코치진이 모두 고교 선후배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한 가지라도 더 지도하려고 노력하고 선수들대 선배들과 땀을 흘리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전무는 내심 2009년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체육회가 초등부 1개팀 창단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비록 초등 1개팀이지만 꿈나무들이 자라야만 명맥을 유지하고 좋은 선수를 연계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학과 실업팀이 구경, 실업팀만 갖춰진다면 금상첨화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 힘든 실정이지만 광주 유도인의 열원과 뜻을 모아 강력히 추진 할 계획이다.

광주 유도체는 2009년 새로운 팀 창단과 함께 부흥의 한 판승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유도체는 2009년 새로운 팀 창단과 함께 부흥의 한 판승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유도체는 2009년 새로운 팀 창단과 함께 부흥의 한 판승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유도체는 2009년 새로운 팀 창단과 함께 부흥의 한 판승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유도체는 2009년 새로운 팀 창단과 함께 부흥의 한 판승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유도체는 2009년 새로운 팀 창단과 함께 부흥의 한 판승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유도체는 2009년 새로운 팀 창단과 함께 부흥의 한 판승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유도체는 2009년 새로운 팀 창단과 함께 부흥의 한 판승을 준비하고 있다.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Advertisement for various businesses including '개업·성업 안내', '동천루', '웅진코웨이', '갈비어천가', '풍천민물장어', '프로리아', '한우가든', '하늘샘탕전문점', '화정광천수사우나', '김해영88백전스포츠아카데미', '날으는청둥오리랑', '서호실업', '입실49피자'.

Table with columns for '지역', '지국명', '전화', '배달구역', listing delivery areas and phone numbers for '광주일보 구독신청·배달·전단배포안내 (062)-220-0551'.

모집 * 총무 및 배달사원을 모집합니다. * 신문배달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지국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남·여(주부, 학생, 일반). 총무경력자 우대 * 급여 : 상당 후 결정